

6. Why the Bible?

2023.2.26.

●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찻집에 앉아서 대화할 때 행복한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망가뜨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처럼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벽돌로 공사한 집이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다시 벽돌로 보수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경(Walking Bible)이십니다. 예) Walking Dictionary, Walking Manual

(요한복음 1장1~3,14절)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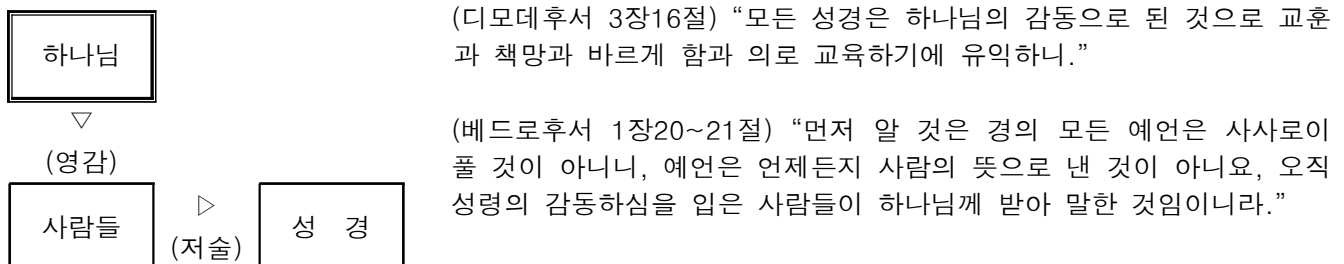
● 누가 성경을 썼는가?

성경(The Bible)은 많은 책들 중에 “바로 그 책”입니다.

왜냐면 세상의 많은 책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쓴 책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책입니다.



●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31절) “3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 예레미야 31장 31~3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한 여인의 결혼 이야기

구 분	분 량	언 어	구 성			
			기 초	과 거	현 재	미 래
구 약 (옛 약속)	39권	히브리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 약 (새 약속)	27권	헬라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 성경을 어떤 책인가?

✓ 성경은 축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평안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1~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 성경은 영적 수술의 도구입니다.

수술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중병으로 공공 앓고 있다면 빨리 수술날자를 잡고 싶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악의 뿌리와 어둠의 그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12~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성경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악령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면 사단의 주요 전략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에베소서 6장13, 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성경은 사랑을 나누는 편지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